

영화 한인 감리교회 (탕부하나님)

2018 11 28



JSU 신앙독서모임 가운데 기쁨을...

영화감리교회 목사 민관영

우리 교회는 30명 정도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서로를 잘 이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함께 하는 영화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규모가 작다보니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거나, 부흥회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기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좋은 강사 이상의 좋은 저자의 좋은 글들을 함께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성도들은 JSU 모임의 성향대로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 Chapter를 들으며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의 나눔을 갖으니 더욱 더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필립 양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의 책은 제목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성도들은 책 제목에 대해 할 말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분명히 실망적으로 시작하는 책이 실망을 벗어나 소망을 갖게 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함께 제 1부 '그림자 속의 하나님'을 읽어 나갔습니다. 소제목들이 말해주듯이 많은 오류들이 있는 것 같은 일상과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많은 부분 공감을 갖게 해주었고,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실망적인 현실들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을 나누며 우리들은 더욱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고, 구체적인 기도제목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눔의 시간을 갖으면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성도들의 마음표현이 있습니다. 박계조 집사는 독선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자신을 글 속에서 발견했고,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좋은 신앙서적들을 자주 접하며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기 위해 애써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명분 권사는 주인공 리처드의 마음처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믿음은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현실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이 가득할 때가 많았던 때를 살아왔으며, 새삼스레 '기다림'이 요구되는 믿음생활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현정 집사의 경우, 기도응답의 문제를 놓고 '비워야' 하는데, '때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자신의 부족과 조급한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기다림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좋아지고 있는 변봉희 집사는 어려서부터 믿는 척 하던 생활로 인해 이렇게 인생의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와 더불어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삶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편인 나상원 권사의 경우 교회가 아닌 개인신앙으로 교만했을 때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살아왔고, 교회 중심으로 돌아서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신앙의 물음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과 새로운 결단들을 갖게 했습니다. 박윤식 집사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살아보겠다는 솔직한 신앙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서희 권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며 지금의 냄비신앙에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결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보라 전도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을 뿐이라며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차수정 권사의 마음에는 '언제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때가 올까?' 하며 칠 십이 넘은 자신의 삶에 하루속히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갈구하는 간절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위에 내려오심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생각 등 많은 나눔과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현실에 대한 신앙적 자각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필립 안시만의 독특한 성경 통찰력은 조금 더 현대인들의 마음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고,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솔하게 대화를 통해 나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감추어졌던 마음들, 인간적인 접근으로 힘들었던 과거의 신앙생활들을 서로 솔직하게 나누며 우리 모두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30 주 동안 계속적으로 함께 하면서 성도들의 솔직한 마음을 엿보며 성경말씀을 통해 해결해 나아갈 새로운 길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10 명이 모여 JSU 모임을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 1 시간 전 함께 했습니다.